트로츠키 사상.

트로츠키 생애

1879년 유대계 평민 출신의 지주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대계지만 가정에서는 Yiddish 대신에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사용했다. "러시아화된 유대인" 여동생인 Olga는 볼셰비키당의 주요 지도자 중의 한 명인 Lev Kamenev과 결혼하여 "혼맥을 통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1896년 노동 운동에의 입문, 1900-1902년에는 시베리아로 귀양(도망)하고, 해외로 망명했다. (원래 이름 – Bronstein; Trotsky는 위조된 여권에서 찍힌 이름). 1902년부터 런던에서 러시아 사민당 기관지인 Iskra 편집에 참여, Plekhanov 등 "구파"와 대립 관계에 돌입했다. 트로츠키는 사생활이 개방적이었는데, 첫 부인(Sokolovskaya)과 이혼하여, 두 번째 부인(Sedova)을 맞이한 뒤에도 첫 부인과 매우 친근한 친구 관계 유지했다.

1903년 러시아 사민당 분당 (分黨) 사태 때, 처음에는 레닌의 비민주성에 격분하여 멘셰비키에 가담했지만 그 뒤에는 "자유주의자들과의 연대 노선"에 실망하여 1904-1917년 사이 "독립적인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해왔다.

트로츠키는 억압적인 규율을 不忍하는 정치적인 성질을 가졌고, 1905년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사회주의 신문 발행인 및 논객이 됐으며 "직접 민주주의" 기관인 페테르부르그 소비에트의 의장이 되었다. 소비에트에 제정 러시아 정부가 빌린 외국 차관(외채)을 갚을 필요 없다는 선언을 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06년 체포되었으나, 1907년 다시 한 번 도망하여 런던으로 탈출했다. 소비에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트로츠키의 무산계급 집권론은 총파업과 "무산자들의 연대"를 "반란"보다 훨씬 더 강조했다.

"The main weapon of the Soviet was a political strike of the masses. The power of the strike lies in disorganizing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he greater the "anarchy" created by a strike, the nearer its victory. This is true only where "anarchy" is not being created by anarchic actions. The class that puts into motion, day in and day out, the industrial apparatus and the governmental apparatus; the class that is able, by a sudden stoppage of work, to paralyze both industry and government, must be organized enough not to fall the first victim of the very "anarchy" it has created. The more effective the disorganization of government caused by a strike, the more the strike organization is compelled to assume governmental functions.

The Council of Workmen's Delegates introduces a free press. It organizes street patrol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citizens. It takes over, to a greater or less extent, the post office, the telegraph, and the railroads. It makes an effort to introduce the eight hour workday. Paralyzing the autocratic government by a strike, it brings its own democratic order into the life of the working city population"

소비에트에서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안적인 非권력적인 권력"

1907-1914에 런던에서 빈으로 이동하여 오스트리아 사민당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독립적인 사회주의적 신문 <프라우다> 발행했으며, (나중에 볼셰비키당 기관지가 그

www.artnstudy.com

이름을 “도용”했다고 트로츠키는 매우 격분했음) 많은 문제에 있어서 볼셰비키들과 충돌했다.
1912년 - <Kievskaya Mysl’>의 종군 기자로서 발칸 전쟁을 취재하여 발칸지역의 사회, 정치적 발전, 현대 전쟁의 문제 등을 깊이 연구했다.
1914-1917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지에서 반전 활동을 하다가 결국 1917년2월 부르주아 혁명 이후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된다. “개량주의적 사민주의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레닌보다 훨씬 더 중도적이었다. 전쟁에 대한 반대를 굳게 하면서 제2차 인터네서널의 완전한 파탄을 면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레닌보다 국제 감각이 다소 예리하고 조금 더 “원대한” 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을 우려해서 “주류 사민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17년 여름에 볼셰비키들에게 합류하여 1917년10월 혁명을 사실상 주도했고, 혁명 이후에 멘셰비키 등 온건 사회주의자들과의 “연합 정권” 구상을 반대했으며, 레닌과 마찬가지로 보다 급진적인 혁명을 지향했다.
트로츠키는 1918년3월까지 외무부 장관 (외무 인민 위원)을 지냈으며, 독일과의 강화 문제에 있어서 역시 미래 지향적인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독일제국과의 협정을 맺음으로서 소비에트 정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일단 독일과의 협상에서 시간 끌기 하여 독일 병사 사이의 혁명적 선전에 중점을 두었다. (즉, 독일에서의 혁명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국제주의적” 접근이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혁명이 늦어져 결국 레닌의 제안대로 강화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 강화 협정은 볼셰비키들의 국내 혁명적 명분을 크게 실추시키고 좌파 사회혁명당 등의 농촌 혁명 세력들과의 유대 관계를 파괴하게 했다.
1918년 3월부터 1920년까지 赤軍(적군 – 소비에트 공화국의 국군)의 지휘자 (국방부 장관)로 적군의 “정규군化”를 시도하였다. 구 제정정권 군 장교 재임명 (배신 시 원칙상 전 가족 총살 내지 수용소로의 체포), 징병제, 사병들에 대한 군재판, 탈영 등 범죄를 지었을 때 총살하였다. 트로츠키는 “민주적인 노동자 권력”의 이상을 저버리지 않았겠지만 정규군인 백군(白軍 – 반동군)이나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군과의 전투에서 “비대칭적 전투”로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여 “현실과의 타협”을 한 셈이었다. 실제 “군인”으로서의 트로츠키는 나름대로의 “중도 노선”을 지켰다.
1920년의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폴란드 영토로의 진입 등 “혁명의 수출” 시도를 반대했는데, 결국, 1920년8월에 바르샤바 정복의 시도가 좌절되었다. 그런데 1920-21년에 트로츠키가 “노조의 국가기관화”와 “노동의 군사화”(노동자의 직장 이동 권리 박탈 및 국가 기관에 의한 무제한적 징발, 전직의 가능성)를 주장하여 특히 노동자 출신의 공산당 중간, 고급 간부로부터 많은 원망을 샀다. “노동 군사화” 제안은 군대, 철도 책임자로서, 즉 고급관료로서의 트로츠키 입장을 반영했고, 트로츠키는 “노동자의 국가에서 노동자가 국가의 명령을 미워할 이유가 없으며 국가를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보여주었다. 근대 지상주의적인 볼셰비키들의 “국가/권력 집중의 숭배”는 볼셰비즘의 공동된 문제였다.
1922년 레닌이 치명적인 병환을 앓고 있는데, 총서기관이 된 스탈린과 볼셰비키들의 “정통적 지도자”인 지노비예프, 카메네프는 트로츠키의 집권 시도를 우려하여 “삼두마차”로서 “반트로츠키 블록”을 만들었다. 1922년 후반부에 들어 소수 민족들을 다루는 스탈린의 비민주성을 목격한 레닌이 스탈린이 지휘하는 당 관료의 잠재적 반동성에 위기의식을 느껴 트로

www.artnstudy.com

츠키와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1923년부터 스탈린, 지노비예프 등이 트로츠키와 가까운 관료들을 좌천시키는 등 트로츠키와 "권력형 암투"를 노골적으로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허구성(라코브스키 주영국대사로의 좌천 등)이 드러났다.
1923년 10월 8일 트로츠키는 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을 극론하였고, 지역 서기관들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되는 시스템을 "당의 관료화"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그 후 1927년까지 "합법적인 당 민주주의 반대파"로 기능해온 것이었다.
1923년 ~ 25년 반대파가 그 의견을 <프라우다> 등에서 발표하여 공개적인 논쟁을 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지는 게임"이었다. 각종의 당 대회, 회의에서 대표자의 선출부터 이미 위로부터 임명된 서기의 선출에 의거했기 때문에, "당 중앙"을 반대하는 어떤 의견도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트로츠키 입장은 보다 급속한 공업 경제 건설 ("총동원"을 주장하지 않았음), "일국 사회주의" 불가능성과 세계 혁명 지향 노선 등 많은 면에서 옳았다 해도 이미 국가의 관료 기구가 된 당에서는 권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어떤 입장도 "힘"을 얻지 못했다. 트로츠키 입장의 치명적 약점, 그가 "당내 민주주의의 부활"을 주장했지만 "당외 민주주의" (예컨대 같은 사회주의적 계통의 멘셰비키 등의 합법적 활동 허용)에 대해 무관심했고, "볼셰비키 국가"에 대한 맹신의 지속이었다.
1926년 계속 강화돼 가는 스탈린의 권력이 눌린 지노비예프, 카메네프가 트로츠키의 편에 옮기지만 1927년부터 스탈린이 반대파에 대해 비밀경찰의 탄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1927년 많은 반대파들이 당적을 박탈하고, **1928년 초기 트로츠키가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로 귀양을 가야 했으며, 사실상 스탈린의 "무제한 독재"의 시초가 되었다.**
1929년~1940년 트로츠키는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에서 해외 망명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소련 주도의 코민테른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코민테른이 파시즘의 독일에서의 집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나서는 1938년에 "제4차 인터네서널"을 결성했다. 문제 "리더"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구조로 인해서 그 트로츠키주의적 분파들이 계속 분당 과정을 겪어 작은 섹트 (종파)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 극단적 "수령주의"와 교조주의, 가장 큰 분열의 원인 "입장주의" (entrism)의 문제가 있었다.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대중적인 노동자 정치를 펴고 있는 사민당, 공산당에 의견그룹으로서 입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외에는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타락된 노동자 국가"로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분열의 가장 큰 이론적인 기제였다.

트로츠키 인생의 가장 큰 모순은, 한편으로는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늘 권력에 반발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국가"와 "당"의 권력을 물신화, 절대화시킨 것이었는데, 자신을 죽인 소련 국가를 끝내 "타락된 노동자 국가"라고 옹호해왔다. 근대주의적 정치인의 특징인 특정 이데올로기, 정당을 "역사의 논리를 전개시키는 주체", 거의 헤겔의 "신의 의지의 실행자"로 보는 입장이었고, 결국 1923년 이후의 트로츠키의 반스탈린주의적 투쟁이 대단히 "온건"했다. 그는 끝내 "반스탈린 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트로츠키 사상의 요점

"지속 혁명" (permanent revolution): 1905년의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개발해왔고, 후진국에 있어서는 부르주아들은 민주혁명조차 이루어낼 수 없기에 미완의 민주혁명 바로 뒤에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이어져야 한다. '왜 혁명이 후진국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트로츠키의 대답은 "복합적이며 불균형한 발전의 법칙" (law of combined and

www.artnstudy.com

uneven development), 발전 수준이 고르지 않은 나라들이 같은 역사적인 세계적 과정 (예컨대 세계대전)으로 휘말리는 와중에서 "약한 고리" (국가 권력이 역하거나 부패한 후진국)가 먼저 터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The first and most general explanation is: Russia is a backward country, but only a part of world economy, only an element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In this sense Lenin solved the enigma of the Russian Revolution with the lapidary formula, "The chain broke at its weakest link."

A crude illustration: the Great War, the result of the contradictions of world imperialism, drew into its maelstrom countries of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but made the same claims on all the participants. It is clear that the burdens of the war would be particularly intolerable for the most backward countries. Russia was the first to be compelled to leave the field. But to tear itself away from the war, the Russian people had to overthrow the ruling classes. In this way the chain of war broke at its weakest link.

Still, war is not a catastrophe coming from outside like an earthquake, but, as old Clausewitz said,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In the last war, the main tendencies of the imperialistic system of "peace" time only expressed themselves more crudely. The higher the general forces of production, the tenser the competition on the world markets, the sharper the antagonisms and the madder the race for armaments, so much the more difficult it became for the weaker participants. That is precisely why the backward countries assumed the first places in the succession of collapse. The chain of world capitalism always tends to break at its weakest link."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 등이 멈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한 고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했고, 한 국가 안에서의 "불균형 발전"(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괴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While peasant agriculture often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seventeenth century, Russia's industry, if not in scope, at least in type, reached the level of progressive countries and in some respects rushed ahead of them. It suffices to say that gigantic enterprises, with over a thousand workers each,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18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Russia it was over 41%. This fact is hard to reconcile with the conventional conception of the economic backwardness of Russia. It does not on the other hand, refute this backwardness, but dialectically complements it.

The same contradictory character was shown by the class structure of the country. The finance capital of Europe industrialised Russian economy at an accelerated tempo. The industrial bourgeoisie forthwith assumed a large scale capitalistic and anti-popular character. The foreign stock-holders moreover, lived outside of the country. The workers, on the other hand, were naturally Russians. Against a numerically weak Russian

www.artnstudy.com

bourgeoisie, which had no national roots, there stood confronting it a relatively strong proletariat with strong roots in the depths of the people"

러시아의 "복합형 발전"이라는 과정 속에서, 외연이 강해도 국내적 민중과의 연결이 약해 강력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러시아 부르주아들이, 결국 전제 정권이 물러나는 대로 무산계급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후진국의 국가의존 외세의존형 자본계급의 약점을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보았다**. 그러기에 무산계급에 의한 "지속 혁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In accordance with its immediate tasks, the Russian Revolution is a bourgeois revolution. But the Russian bourgeoisie is anti-revolutionary. The victory of the Revolution is therefore possible only as a victory of the proletariat. But the victorious proletariat will not stop at the programme of bourgeois democracy: it will go on to the programme of socialism. The Russian Revolution will become the first stage of the Socialist world revolution" (<In Defence of October>, Denmark, 1932).

국가와 노동자 민주주의 문제.

문제는 만약 후진적인 국가의 무산계급을 지도한다는 공산당 그 자체가 억압적인 국가의 골간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민주주의"가 견제 장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트로츠키는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원칙상 노동자의 생산 과정 통제를 요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노동자들의 생산 통제 참여는 "계급간의 협력" 그 이상이 못되고, 어차피 부르주아에 의해서 견제 받아 잘 실행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즉, **트로츠키에게는 노동자의 생산 통제에서의 참여는 "부르주아 국가 파괴의 첫 단계", 즉 "국가 권력의 문제"로서만 의미 있음. 비록 부르주아 국가라는 한계가 있어도 생산 민주주의 그 자체의 잠재력을 트로츠키는 과소평가했다.**

"What state regime corresponds to workers' control of production? It is obvious that the power is not yet in the hands of the proletariat, otherwise we would have not workers' control of production but the control of production by the workers' state as an introduction to a regime of state production on the foundations of nationalization.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workers' control under the capitalist regime, under the power of the bourgeoisie. However, a bourgeoisie that feels it is firmly in the saddle will never tolerate dual power in its enterprises. workers' control consequently, can be carried out only under the condition of an abrupt 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forces unfavorable to the bourgeoisie and its state. Control can be imposed only by force upon the bourgeoisie, by a proletariat on the road to the moment of taking power from them, and then also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us the regime of workers' control, a provisional transitional regime by its very essence, can correspond only to the period of the convulsing of the bourgeois state, the proletarian offensive, and the failing back of the bourgeoisie, that is, to the period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the fullest sense of the word.

If the bourgeois is already no longer the master, that is, not entirely the master, in his

www.artnstudy.com

factory, then it follows that he is also no longer completely the master in his state. This means that to the regime of dual power in the factories corresponds the regime of dual power in the state.

This correspondence, however, should not be understood mechanically, that is, not as meaning that dual power in the enterprises and dual power in the state are born on one and the same day. An advanced regime of dual power, as one of the highly probable stages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every country, can develop in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ways, from differing elements. Thus, for example, in certain circumstances (a deep and persevering economic crisis, a strong state of organization of the workers in the enterprises, a relatively weak revolutionary party, a relatively strong state keeping a vigorous fascism in reserve, etc.) workers' control of production can come considerably ahead of developed political dual power in a country" (<Workers' Control of Production>, 1931).

트로츠키는 주로 "부르주아 국가 파괴의 단계"에서의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평소"에 노동자들이 공장 운영 위원회에서 직접적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는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경멸적이었다. ("계급간의 협조") 그리고 "노동자의 국가"가 되면 일단 "노동자의 국가에 의한 국유화"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처럼 예상하고, "노동자 국가"의 물신화, "노동자 국가" 안에서의 모순 관계를 보지 못하는, 비변증법적 사고를 가졌다.

국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반론에 대해서 트로츠키의 반박

"With the exception of one country, state power throughout the world is in the hands of the bourgeoisie. It is in this, and only in this,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letariat, the danger of state power lies. The proletariat's historical task is to wrest this most powerful instrument of oppression from the hands of the bourgeoisie. The Communists do not deny the difficulties, the dangers that are connected with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But can this lessen by one iota the necessity to seize power? If the whole proletariat were carried by an irresistible force to the conquest of power, or if it had already conquered it, one could, strictly speaking, understand this or that warning of the syndicalists. Lenin, as is known, warned in his testament against the abuse of revolutionary power. The struggle against the distortions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has been conducted by the Opposition since its inception and without the need of borrowing from the arsenal of anarchism.

But in the bourgeois countries, the misfortune lies in the fact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proletariat does not understand as it should the dangers of the bourgeois state. By the manner in which they treat the question, the syndicalists, unwittingly of course, contribute to the passive conciliation of the workers with the capitalist state. When the syndicalists keep drumming into the workers, who are oppressed by the bourgeois state, their 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a proletarian state, they play a

www.artnstudy.com

purely reactionary role. The bourgeois will readily repeat to the workers: “Do not touch the state because it is a snare full of dangers to you.” The Communist will say to the workers: “The difficulties and dangers with which the proletariat is confronted the day after the conquest of power − we will learn to overcome them on the basis of experience. But at the present time, the most menacing dangers lie in the fact that our class enemy holds the reins of power in its hands and directs it against us.” (<The Errors in Principle of Syndicalism>, 1929)

국가 위험성에 대한 몰이해는 자본주의 국가의 개량주의자들에게 더 강하며, 소련 안에서는 국가의 관료화에 대해서는 좌파 반대파가 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박의 논지다. 문제는, “좌파 반대파의 투쟁”은 실제로 승산이 없었으며 트로츠키 예상과 달리 스탈린의 독재 국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말았다. **결국 “국가의 위험성”을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반체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 등에서나 동질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데, 트로츠키는 이와 같은 시각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소련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

“Dissertations upon “the dictatorship of the bureaucracy over the proletariat” without a much deeper analysis, that is, without a clear explanation of the social roots and the class limits of bureaucratic domination, boil down merely to high-faluting democratic phrases so extremely popular among the Mensheviks. <u>One need not doubt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oviet workers are dissatisfied with the bureaucracy and that a considerable section, by no means the worst, hates it. However, it is not simply due to repression that this dissatisfaction does not assume violent mass forms; the workers fear that they will clear the field for the class enemy if they overthrow the bureaucracy.</u>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bureaucracy and the class are really much more complex than they appear to be to the frothy “democrats.” The Soviet workers would have settled accounts with the despotism of the apparatus had other perspectives opened before them, had the Western horizon flamed not with the brown color of fascism but with the red of revolution. So long as this does not happen, the proletariat with clenched teeth bears (“tolerates”) the bureaucracy and, in this sense, recognizes it as the bearer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In a heart to heart conversation, no Soviet worker would be sparing of strong words addressed to the Stalinist bureaucracy. But not a single one of them would admit that the counterrevolution has already taken place. The proletariat is the spine of the Soviet state. But insofar as the function of governing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n irresponsible bureaucracy, we have before us an obviously sick state. Can it be cured? Will not further attempts at cures mean a fruitless expenditure of precious time? The question is badly put. By cures we understand not all sorts of artificial measures separate and apart from the world

www.artnstudy.com

revolutionary movement but a further struggle under the banner of Marxism. Merciless criticism of the Stalinist bureaucracy, training the cadres of the new International, resurrecting the fighting capacity of the world proletarian vanguard − this is the essence of the "cure." It coincides with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historical progress" (<The Class Nature of the Soviet State>, 1933)

트로츠키는 소련 관료계급이 아직도 "지배계급"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그들의 "사회적 기생성"을 폭로해도 그들을 과거의 부르주아와의 동질의 존재로 파악하지 않았다. 즉 "타락된 노동자 국가" 논리였다. 사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국가의 부활이 두려워서 관료적인 타락을 견디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새로운 국민 국가에서 사회적 진출의 기회에 많은 노동자들이 신흥 국가에 대한 충성을 느꼈고, 이것은 매우 빠른 사회 진출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1941년 ~ 45년 소독 전쟁 이후 새로운 국가는 막강한 국민주의적 이데올로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국가에 의한 대중의 포섭" 역시 트로츠키가 놓친 부분이다.**

트로츠키 사상의 장점은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의 복합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 혁명의 이상에 충실해온 부분이다. 단점은 "국가, 당 등 유사 국가적 조직의 내재적 위험성"에 다소 무감각하고 특히 소련의 국가, 당을 끝까지 물신화했다는 것인데, 대중의 민주적 자율성의 문제를 잘 간파하지 못했다.

www.artnstudy.com